

Enjoy Safety~~

서비스업종 자율안전으로 앞장설 것

1886년 애틀랜타의 약제사인 J.S. 펴버턴이 코카의 잎, 콜라의 열매, 카페인 등을 주원료로 하는 음료를 만들어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하였다.

초기에는 두통을 제거할 응급제로 개발되었지만, 1919년 약제사인 에이스 캔들러가 제조·판매권을 매입하여 현재의 회사조직을 설립하고 청량 음료로서 판매를 개시하기 시작했다. 코카콜라는 지금 전 세계 200여국 이상에서 팔리고 있으며 음료로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상표로 미국과 자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한다.

코카·콜라음료주식회사 서울독산동 물류센터

취재 | 글 임재근 기자





코카·콜라 음료주식회사는 코카콜라를 비롯하여 킨사이다, 암바사, 환타,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조지아커피 등 6개 품목 총 120여 종의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 여주, 광주, 양산의 3개의 공장과 28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물류센터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물류거점지다. 수도권에 배송되는 코카·콜라 음료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쳐가고 있다고 한다.

물류센터는 회사의 주요 부서가 상주하고 있으면서, 본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안전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곳 독산물류센터의 환경안전보건팀은 전국의 3개 공장과 28개 물류센터의 안전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전국 3개의 공장에서 인근 6~10개의 물류센터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이곳에서 3개의 공장과 28개의 물류센터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매우 넓은 관리범속에서도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안전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코카·콜라 음료주식회사의 안전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내부안전집단은 여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안전보건에 대한 연간 활동계획을 각 공장이나 부서별로 연말에 스스로 작성토록하고 각 부문장의 결재를 통하여 연초부터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보고된 연간 안전활동계획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나가고 미비한 부분은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위험은 크게 공장에서의 위험과 물류영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음료제조는 대부분 컨베이어 설비에 의해 생산되다 보니 근로자가 벨트에 끼이는 사고와 설비의 정비/보수작업 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물류부문에서는 적재된 제품이 붕괴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다수의 지게차 운행으로 지게차에 치일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영업부문에서는 제품운반으로 따른 요통재해 발생 위험과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

과거 발생된 재해사례를 보면 생산공장에 비해 물류영업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이곳의 안전보건 관리활동은 물류영업 쪽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20



물류부문 부문장 권혁경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터..

회사에서 정해진 원칙과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저는 과거 20여 년 간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해 왔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재해는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재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재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휴먼에러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었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별로 또 산업별로 표준을 정해 놓듯이 안전에 있어서도 안전작업수칙이나 보호구 착용 규칙 등을 정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빨리하려고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방심할 때 사고에 대한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는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생산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활동이 눈에 띈다. 음료를 배송할 때 등짐을 지고 계단이나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했던 고질적인 안전보건 위험요인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년간 꾸준한 연구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해나간 결과 등짐도구를 개발, 인간공학적 평가를 통해 효능을 확인한 후 이를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직원의 50%가 이 등짐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밖에 이곳에서는 자생한방병원과 협력하여 요통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 스트레칭을 현장용과 사무용으로 개발하여 이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무재해 활동 전개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에서는 과거 재해발생빈도와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무재해 달성일' 목표를 각 부서별로 정하여 내부 무재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험요소가 많거나 재해발생빈도가 높은 부서의 경우 무재해 목표일수를 낮게 잡고, 위험요소가 적거나 재해발생빈도가 낮은 부서에는 무재해 목표일수를 높게 잡는 형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매일, 매월 실행해야할 안전보건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곳 현장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업무가 그렇듯 목표 설정만 가지고는 분명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목표달성에 따른 포상 역시 확실히 시행하고 있다.

무재해 목표를 달성할 시에는 부서별로 CEO명의로 무재해포상품과 무재해달성 인정서를 수여하고, 개인에게는 무재해목표달성 공로 표창장과 함께 인사고과에 반영, 승진과 연수 등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즉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무재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 7대수칙 제정과 근로자 건강 증진에도 앞장 서..

이곳 안전보건활동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최근 발생한 재해유형을 정리하여 코카콜라만의 '안전보건 7대 수칙'을 정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이 '7대 수칙'은 이곳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11대 안전수칙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내고 있다.

또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헬스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동호회도 지역별로 14~18개 이를 정도로 활성화시켜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정밀 체력측정을 통해 체성분 분석, 체력진단, 운동처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중대질환과 성인병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